

# 나주시, 미래 에너지 혁신도시로의 도약 선언

### '2025 광주·전남 과학기술인의 밤' 행사서 나주의 잠재력 설명 강상구 부시장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미래 지역성장 핵심 동력"

전라남도 나주시가 AI 시대 전력수요 급증과 기후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의 해법으로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나주 구축을 강조하며 미래 에너지 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26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강상구 부시장은 '2025 광주·전남 과학기술인의 밤' 행사에서 1조 2천억 원 규모의 핵융합 연구 인프라 구축 필요성과 나주의 지리적, 산업적 강점을 집중 설명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 확보의 핵심 거점 도시'로서 나주의 비전을 설명했다.

강상구 부시장은 지난 25일 광주테크노파크 과학기술동에서 열린 '2025 광주·전

남 과학기술인의 밤-AI빅데이터·기후환경에너지 혁신 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의 당위성과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강 부시장은 발표에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폭증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시대에는 안전하고 무한한 핵융합 에너지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주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1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인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최적지는 바로 나주"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주가 가진 안정적인 지반, 풍부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

한 에너지 기반 시설, 대규모 산업과 R&D 집적 여건 등을 언급하며 "핵융합 산업은

미래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지역 R&D 불균형을 해소하고 광주 AI 클러스터의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광역 협력사업"이라며 "광주와 전남의 미래 번영을 여는 씨앗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시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는 핵융합 연구"라며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나주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 함평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 주포권역다목적센터, 행안부 장관상·주민 중심 운영 모델 호평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 주민주도형 지역 발전 역량을 전국에 알렸다.

함평군은 26일 "일반농산어촌개발 권역다목적종합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포권역다목적센터가 지난 20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가 주최한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2025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3년 연속 우수사례 주민주도형 지역 발전 역량을 전국에 알렸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지 실현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주포권역다목적센터 이지숙 사무장은 권역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함평군은 2023년 취약 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지방시대위원장 기관 표창을 받은 데 이어 3년 연속 균형발전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주포권역다목적센터는 '저녁노을이 머무는 석양마을'을 주포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의 자연 경관과 관광 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운영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직접 체육시설·오토캠핑장·물놀이시설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했고, 해당 수익을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로

이상이 군수는 "주민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전국 지자체 평가부문 3년 연속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사회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 장성군, 군민 생명 지키는 '골든타임 수호대' 출범

### 여성의용소방대원 22명 구성... "지역 응급안전망 촘촘하게 구축"

장성군이 24일 가족복지센터에서 '골든타임 수호대'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가졌다. 김한중 장성군수,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22명의 여성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골든타임 수호대'는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평상시에는 마을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도 교육한다.

이날 발대식에선 위촉장 수여, 교육 과정 소개, 심폐소생술 심화 과정 강의 등이 진행됐다.

한편 '골든타임 수호대'는 장성군이 추진 중인 '우리마을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결성됐다. 지난해 말에는 마을 이장 245명을 '우리마을 응급도우미'로 위촉하고, 1년여에 걸쳐 응급상황 대처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지난 10월부터는 장성군보건소 인근에서 '심폐소생술 체험관'을 운영해 학생과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응급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고 단단하게 구

축해, 군민의 생명을 지키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 고흥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후관리 '우수'

### 안정적 급수기반 구축 및 우수율 향상 성과 인정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전국 2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025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사후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영민 군수는 "앞으로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고, 비상 공급망 구축, 정수장 개량, 급수구역 확대 등을 통해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우수율 및 관망관리 성과 달성 수준 ▲유지관리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서류평가(80%)와 발표평가(20%)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고흥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수도물 공급 안정성 강화, 취약·노후 관로 개선, 관망관리 디지털화, 원격점검 확대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2027년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고 보조율 20% 상향 지원과 포상금 500만 원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지방상수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해비치호텔 앤 제주에서 열리는 2025년 수도시설 운영관리 워크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 순천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

### 내년 3월까지 비상근무 체계 가동

순천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올겨울 시베리아 고기압 확장으로 주변 해역의 높은 해수온의 영향으로 강한 한파와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시는 대설 특보 시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예·경보와 상황전파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빈틈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건축과, 도로과, 산림보호과, 상수도과 등 8개 부

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제설 취약 도로, 붕괴 우려 건축물, 농사태 위험 지역, 상수도 등과 등 관내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제설 대응을 위해 친환경제설제 133톤과 제설장비 68대, 주요 고갯길에 제설전진기 7개소를 운영해 폭설 및 도로 결빙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인도, 마을안길 등 취약구간에 신속한 제설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설 특보 시에는 도로 교통 소통을 위한 합동 현장 작업도 실시한다.

순천/정성인 기자

## 광양시, 내달 '2025 광양시 산업·고용 포럼' 개최

### 12월 2일 '위기를 기회로: 광양의 미래를 그리다' 주제로

광양시는 오는 12월 2일(화) 오후 1시 30분, 시청 시민홀에서 '2025 광양시 산업·고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위기를 기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산업·고용 전반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향후 광양시가 마련해야 할 전환 전략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산업·고용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산업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고용 안정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전남테크노파크 주력 산업본부 김명수 본부장이 '철강산업의 위기 대응과 신산업 리더십'을 주제로

철강산업의 단기 대응 전략, 기술 혁신을 통한 장기적 산업 전환 방향, 신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고용 분야에서는 지역산업경제연구원 주무현 원장이 '포스트 철강 시대, 광양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모색'을 주제로 청년 고용 문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전략 등을 다룬다.

발표 이후에는 산업·고용 관련 주요 현안을 참석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조동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관심 있는 시민과 기업·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